

중앙회 회장단 및 기술분과위원·기술지도위원 임원진 회의 개최 2004년 사업 결산 및 2005년 사업계획 보고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12월 16일 본 협회 회관 회의실에서 회장단 및 기술분과위원·기술지도위원 임원진이 회의를 갖고 협회 발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

쳤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조병천 수석 부회장, 박찬회(기술분과위원장 겸직)·유현식·김흥연 부회장, 곽지원 기술분과부위원장, 안창현 기술지도위원장, 우원석 기술지도부위원장 등 총 8명과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사업 결산을 보고하고, 2005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2005년 사업인 제12회 국제빵·과자경진대회, 전국여성기술인경연대회, 국제크로캉부슈페스티벌, 전국크림치즈실기경연대회, 전국호두제품경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시범종목 출전 등 기술발전을 위한 보고가 이어졌다. '2006년 월드페이스트리팀 챔피언십'과 '2007 월드페이스트리컵'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전국여성기술인경연대회의 개최 요강 중 일부 미흡한 내용은 수정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2002년부터 고정된 책값으로 적잖은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월간 <베이커리>의 책값 인상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친 끝에 물가상승을 반영해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회원업소의 매출 신장을 위해 제작한 판촉물 무료 배포는 중앙회 적자 누적으로 예년처럼 실비 단가로 유료 제작해 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협회 회관 건립기금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부채상환계획을 발표하고, 외부에서 실시하던 각종 기술세미나 및 교육을 개최할 수 있는 세미나실 설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5 모박쇼 연수단 모집

모박쇼 참관 및 오사카 고베 지역 유명 제과점 견학

(사)대한제과협회는 2005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오사카에서 열리는 모박쇼에 참가할 연수단을 모집한다. 모박쇼는 점포 운영과 기술 발전, 매출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권위 있는 행사로 꼽힌다. 이번 연수는 모박쇼 참관을 비롯해 좀처럼 방문하기 어려운 오사카와 고베의 지역 유명 제과점과 일본 식기문화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난바도구상가, 포장상가 등의 견학 등을 통해 일본 현장의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모박쇼 연수단 참가 비용은 105만 원. 신청 및 문의는 (사)대한제과협회 이경미 대리·김창민 (02-2055-3348).

Prism

프랜차이즈 업체 카드 할인 관련 긴급회의 개최

1월 중순 경, 4개 업체 카드할인 제도 중단 여부 결정



(사)대한제과협회는 2004년 12월 1일 본 협회 회관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이동통신업체와 연계한 할인카드 사용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점 도출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모 회장과 조병천 수석부회장·박찬회 부회장 등 협회 회장단, 김흥연 부회장(뚜레쥬르), 김옥중 부회장(크라운베이커리), 서남석 전무(파리바게뜨), 이정기 상무(파리바게뜨 마케팅팀), 이희철 팀장(신라명과) 등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 윤총기 서울시지회장협의회장, 송연환 마포지회장, 최홍기 남부지회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할인카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지회장협의회 윤총기 회장의 발의로 각 지회에서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케이크 및 선물용 제품을 20% 할인하겠다는 현수막을 회원사에 보내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지회장들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신라명과 등 프랜차이즈 업체가 함께 구체적인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동통신업체와 연계한 할인카드에 대한 회원들이 불만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계속 불거짐에 따라 (사)대한제과협회 회장단은 파리크라상 조상호 대표와 회담을 갖고 파리바게뜨가 이동통신업체와 연계한 카드할인제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조상호 대표가 다른 회사에서 하지 않으면 카드할인제도 중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구체적인 합의안 결정에 나선 것.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전체적인 시장 율리를 따져봤을 때 시장 파이 확대 측면에서 할인카드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동통신업체와 계약기간을 이유로 프랜차이즈 4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만이 반대를 고집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각 업체들이 이동통신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5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사실을 참작해 재계약 준비 기간인 1월 중순 경에 다시 만나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마쳤다.

김영모 회장은 "이 자리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원도우 베이커리가 공생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업체가 중단 의사가 없다면 원도우 베이커리도 협회 차원으로 카드 할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시점에서 제과업계 실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라고 프랜차이즈 업체의 할인카드제도 중단을 촉구했다.

담당: 홍선화

안양시지부

회원 결속 위한 단합대회 개최



안양시지부(지부장 이호식)는 지난 10월 19일 경기도 양수리 영화촬영소, 강촌구곡폭포, 현리유원지로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이날 단합대회에는 이호식 지부장을 비롯해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안

양시지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가을 절경을 감상하며 오랜만에 자연을 벗 삼은 회원과 임원들은 서로 친목을 다지고 지부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논산시지부

기존업주 위생보수교육 개최



논산시지부(지부장 박용순)는 지난 11월 9일 논산시 청소년수련관에서 70여 명의 기존제과점 영업주와 휴게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당초 충청남도 지회가

있는 천안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거리상으로 워낙 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논산시를 비롯해 부여군과 계룡시를 통합해 교육을 하게 됨으로써 지부 미결성 지역의 업주들을 회원으로 가입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교육은 충남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재형 계장과 충남제과제빵학원 정용면 원장의 강의로 제과점 영업의 식품위생 및 관계법령을 비롯해 원산지 표기, 재료유통기한 관리 등 제과점영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동부지회

이사회 · 과우회 합동 송년의 밤 개최



동부지회(지회장 김종주)는 지난 12월 13일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크리스탈 뷔페에서 이사회와 과우회가 함께하는 합동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사회 및 과우회 회원들의 부부동반 모임으로 이루어져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2005년을 기억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했다. 김종주 지회장은 "내년도 변함없이 동부지회에 대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한다"며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Prism

중부지회 · 익산시지부

가슴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



중부지회와 익산시지부가 '사랑의 빵'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중부지회(지회장 이기철)는 지난 12월 7일 농아인협회 중구지부에서 불우 농아인들을 위해 마련한 '사랑나눔 한마당' 행사에 회원들이 직접 만든 롤케이크 140개를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 행사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의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웃돕기 축제로 펼쳐졌다.

이기철 지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 이웃 돕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시지부(지부장 김현국)는 지난 10월 25일, 26일 이틀 동안 열린 도민체육대회에서 빵과 음료를 판매해 거둔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고, 남은 빵을 거둬 복지시설에 기증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사진). 이번 행사에 도움을 준 회원업소는 모두 14곳으로 한 업소당 빵 70~80개를 기증했다.

김현국 지부장은 "장기 불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익산시지부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고마움을 밝혔다.

공주시지부

제14차 정기총회 개최



공주시지부(지부장 김길성)는 지난 11월 25일 공주시 경복궁웨딩홀에서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지부 발전에 공헌이 컸던 이봉철(우리빵집) · 김정익(몽베르) · 배중길(빵이좋은사람들) · 김기수(파리바게트)에게 중앙회장상을 수여하고, 대성실업 조성일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길성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부를 위해 애쓴 임원과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회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는 중앙회 김성환 부회장을 비롯해 대전광역시 정만규 지회장, 대전시 보건위생과 박유순 계장, 충청남도지회 문흥대 지회장, 아산시 최병구 지부장, 당진시 주원환 지부장 등 내외빈과 공주시 교문단, 많은 회원이 참석해 공주시지부의 도약을 기원했다.